

# ‘20세기 최고의 지성’ 움베르토 에코 잠들다

###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등 한국에서도 큰 인기 작가·인문학자·기교·강연으로 세계인들에 큰 영향

“우리는 난쟁이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다. 우리는 작지만, 때론 거인보다 먼 곳을 내다보기도 한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중에서)

지난 19일 타계한(향년 84세) 소설 ‘장미의 이름’의 저자 이탈리아의 움베르토 에코는 20세기 최고 지성인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그는 작가이자 세계적인 기호학자였으며 동시에 철학자이자 미학자이기도 했다. 문화와 문학, 기호학과 미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학문과 문화 영역을 가로지르는 유목적 삶의 이면에는 그의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이 자리했다. 에코는 모국어인 이탈리아 외에도 프랑스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하고 썼다. 그뿐 아니라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어, 러시아 등도 불편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에코는 1932년 이탈리아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토리노 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한 그는 1960년대부터 이론적 저술로 서구 지식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1975년 볼로냐의 기호학 정교수로 임명되면서 그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 저술 활동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에 출간한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에코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호학자로 입지를 굳히게 된다. 작품은 중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소설로, 종교적 독선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던 중세 유럽에 초점을 맞춘다. 소설은 42개 언어로 번역돼 20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1988년에 발표된 ‘푸코의 진자’ 또한 기



### 한국의 개고기 문화 비난한

### 프랑스 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에

### “우둔함의 극치” 지적도

호화자의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 악마주의와 구원을 다룬 소설은 독자들과 평론가들로부터 “역시 에코”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교황청으로부터는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는다. 그러나 ‘푸코의 진자’는 세계의 여러 매체에서 ‘1989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진자’는 한국에서도 번역돼 많은 인기를 끌었다. 2010년 작고한 이윤기(신화연구가·번역가) 씨가 각각 1986년과 1990년에 번역해,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발간됐다. 열린책들 측은 “당시에 움베르토 에코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현상’같은 인물”이었다며 “어느 누구도 그가 세계의 지성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에코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인문학자로서 뿐 아니라 다양한 기교와 강연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2005년



움베르토 에코

Prospect/Foreign Policy 공동 조사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노엄 촘스키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3위는 리처드 도킨스였다. 에코는 우리나라와도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판한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에 대해 ‘파시스트’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에코는 2002년 ‘세계의 문학’ 여름호에서 “한국인들 역시 자기네 프랑스 사람들처럼 개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녀는 파시스트밖에 볼 수 없

다”며 “어떤 동물을 잡아먹느냐의 문제는 인류학적인 문제다. 그런 면에서 바르도는 한 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둔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한편 50여 권에 이르는 에코의 책을 출간한 바 있는 열린책들은 에코의 마지막 작품 ‘누메로 제로’를 오는 6월 출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은 사실을 보도하기보다 협박과 진흙탕 싸움을 일삼는 언론을 겨냥하며 이탈리아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작품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백수인 조선대 교수 첫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 펴내

### 등단 13년만에 63편 실어

조선대 국어교육과 백수인 교수가 신작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시와 사 람)를 펴냈다.

등단 13년 만에 첫 시집을 발간한 백 교수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의 존재론, 동양적 세계관 등을 정치하면서도 정갈한 언어로 풀어낸다. 모두 63편이 수록된 시집은 일상과 자연, 공간과 시간, 사물과 사람에 대한 특유의 단상과 사유가 담겨 있다.

그러나 모든 시를 관통하는 정서는 서정성이다. 시의 본질이 서정이라는 명제에 부합할 만큼 작품마다 잔잔한 울림이 투영돼 있다. 특히 시인은 서정이라는 감성을 매개로 시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표제시 ‘바람을 전송하다’는 제주도의 밤바다에서 육지로 보내는 바람의 심상을 형상화한 시다.

“그날 제주도의 밤바다에서 새까만 바람을 당신에게 전송했지요 제 모습 뒤에 있던 건 파도의 몸부림이었어



요 당신에게 몰아친 사랑처럼 나를 삼키고 있었어요...”

화자는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청자를 향해 제주의 바람, 파도, 이미지 등을 전송한다. 그 순간 이미지와 메시지는 시공간의 경계를 무화시킨다. 시는 몸과 마음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선사한다.

해설을 쓴 백인덕 평론가는 “모든 명제에 부합할 만큼 작품마다 잔잔한 울림이 투영돼 있다. 특히 시인은 서정이라는 감성을 매개로 시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표제시 ‘바람을 전송하다’는 제주도의 밤바다에서 육지로 보내는 바람의 심상을 형상화한 시다.

한편 백 교수는 2003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문학의 역사와 의미’, ‘소통과 상황의 시학’, ‘소통의 창’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지난해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참여한 단원들이 선보인 아프리카댄스.

### 청춘, 세계를 품다

### 국제청소년연합, 24일 DJ센터서 ‘2016 굿뉴스코...’

국제청소년연합(회장 박문택, 이하 IYF)이 ‘청춘,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2016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오는 24일(오후 7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난 2001년 설립된 IYF는 국외 80개국, 국내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을 조직해 매년 약 10개월간 세계 80개국에 400~600명 대학생 단원을 파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14기 굿뉴스코 단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총 412명으로 지난해 58개국에서 활동했으며 광주·전남 지역 단원은 42명이다.

페스티벌은 활동보고, 전통공연, 연극 ‘트루스토리’, 체험단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활동한 단원들은 남태평양 사람들의 행복을 표현한 전통 댄스를 공연한다. 또 아프리카에서 겪은 풍토병, 언어적 어려움 등을 겪었던 상황을 들려주는 체험담을 발표한다. 연극은 단조로운 대학생활 속에서 게임, 술, 무기력증에 빠져 살았던 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 변화한 이야기로 꾸며졌다.

김에속(스외질랜드, 전남대) 단원은 “14기 단원들이 각국에서 10개월 동안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번 행사에서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yf.or.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문의 062-655-7200. /김용희기자 kimyh@

### ‘앵무새 죽이기’ 작가 하퍼 리 별세

### 지난해 ‘파수꾼’으로 화제

소설 ‘앵무새 죽이기’로 흑인 인권 문제와 편견을 제시했던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하퍼 리(사친)가 18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하퍼 리는 1926년 미국 앨라배마 주 먼로빌에서 출생했다. 학생 시절 짙막한 글을 발표하던 그녀는 항공사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썼다. 그녀에게 명성을 안겨준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의 대공황

기인 1930년대 앨라배마의 한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흑인 차별 실태를 소녀의 눈으로 날카롭게 고발한 소설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장애인, 독신자, 빈곤층 등 편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본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설은 1961년 발간 당시 풀리처상을 받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씩 팔리는 스테디셀러다. 한편 하퍼 리는 당초 이 작품은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보냈지만, 편



집자의 권유로 개작을 해 ‘앵무새 죽이기’가 탄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앵무새 죽이기’의 전작인 ‘파수꾼’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www.솔향기맑은터.com

#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성)

###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